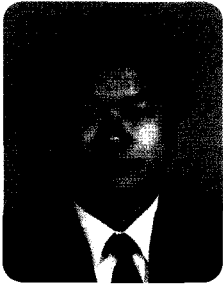


철쭉나무



최명섭 임업연구원

- ▶ 과명 : 진달래과
- ▶ 학명 :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 ▶ 영명 : Smile Rosebay, Royal Azalea
- ▶ 한명 : 躑躅
- ▶ 일명 : くらぶねつつじ

이때쯤이면 전국의 유명 산에서 철쭉제 행사가 열린다. 철쭉제는 봄을 맞으며 산신령에게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소박한 정성이 잘 묻어나는 정성스러운 예이다. 산철쭉, 진달래, 산진달래, 털진달래, 참꽃나무, 철쭉나무 등 구분을 못하고 모두 철쭉이라고 부르면서 즐기고 있는것이다.

최근 몇년전 정원학회 회장님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목류중 꽃 색깔에 대한 취향을 조사한 바 철쭉의 분홍색 꽃이 우리민족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꽃의 색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

중국에서는 산철쭉을 산적족(山躑躅)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어에서 철쭉이란 이름이 연유 된듯하고 우리나라의 옛 기록에 철쭉을 적족, 또는 양적족(洋躑躅)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길 가던 철쭉꽃 앞에서는 독성이 있으므로 양이 먹으면 죽게되어 이 꽃만 보아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멈춰 서서 머뭇거린다 하는 뜻이 아닌가 한다.

학명은 로도덴드론 슈리펜바카아이(*Rhododendron schlippenbachii*)로 부르는데 로도덴드론은 진달래나 산철쭉, 철쭉 종류의 모든 종류의 철쭉류에 붙여진 인간의 성(性)씨에 해당되는 말이고 슈리펜바카아이는 이 꽃을 처음 발견하여 유럽에 소개한 러시아 해군장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 철쭉나무

1. 생태적 특성

전국의 표고 100~2,000m사이의 산야에 자라는 낙엽 활엽 작은 키 나무로 높이 2~5m정도 자라고 지리적으로는 일본과 만주에 분포한다. 큰키나무 아래에서도 잘 자라며 산성토양과 유기물의 함량이 많은 비옥한 곳을 좋아하며 추위에도 강하고 해변가에서도 잘자란다. 토양에 대한 적응력은 약한 편이며 생장이 느리고 잔뿌리가 적어 이식력은 불량하며 대기오염에 대한 적응력도 약한편이다. 고성군 산불지역에서 피고 있는 꽃을 보면 대단한 생명력의 나무로 즐기는 불에 타더라도



▲ 흰철쭉

뿌리는 남아 있다가 그해에 다시 새로운 줄기가 나와 있다가 다음해 봄이면 온 산천을 연한 홍색의 꽃을 피운다.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직립하여 성장하지만 굵은 가지를 많이 내며 수피는 황갈색으로 털이 없다. 잎은 아래 부분에서는 어긋나지만 주걱처럼 길쭉하게 둥근잎은 잎자루 없이 가지 끝에서는 5개씩 돌려나고 잎 끝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길이는 5~10cm로서 톱니가 없고 표면은 녹색으로 처음에는 털이 있으나 없어지며 뒷면은 회녹색으로 맥상에 털이 있다. 꽃은 양성이며 산형화서(傘形花序)로서 가지 끝에 3~7개씩 달리며 잎과 더불어 5월에 피고 향기가 있으며 연한 홍색이다. 열매는 긴 타원상 둥근 계란형이고 길이 1.5cm의 삭과(蒴果)로서 선모(腺毛)가 있으며 10월에 익는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 산불 발생지의 고정시험지에서 발견된 6개체는 순백색의 꽃을 발견하였는데 흰철쭉 (for. albiflorum T. Lee)이라고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5월에 피는 연한 홍색의 꽃이 불완전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감미로운 정감을 느낀다. 산성토양에 강하고 꽃의 색감도 부드러운 곡선의 잎이 우리 국민정서와 부합되어 앞으로 개발 가치가 큰 수종으로 세계 시장에서 수출 품목으로도 널리 보



▲ 철쭉나무

급할만하다 하겠다. 특히 그늘에서 견디는 힘이 강하여 큰 나무아래 식재하면 복층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꽃은 독성이 강하므로 식용할 수 없다.

4. 번식법

가을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건조시켜 두었다가 이른 봄에 플라워박스에 이끼를 깔고 종자를 뿌린다음 발아가 되어 어느정도 자라면 묘판에 이식한다.

5. 그 밖의 용도

철쭉꽃은 약용식물로 감장, 이뇨, 건위제에 사용되지만 독성이 있어 주의해야 하며 조각재로도 사용되나 공원이나 정원수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다. **조경수**